

2025년 크루즈산업의 『LEADER⁺』를 꿈꾸다!

인천 크루즈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요 지

□ 비전과 목표

비전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 문호도시 인천
- 2025년 크루즈산업의 **LEADER*** 를 꿈꾸다! -

정책 목표

2025 크루즈 **100항차<30만명>** 유치 및 명품 크루즈항 조성
* 인천 경제유발효과 **260억원** 창출 <2025년 크루즈관광객 중 10만명 인천유치 기준>

추진전략

Last good policy

“양질의 크루즈정책 지속”

Enhance terminal

“크루즈터미널 기능 강화”

Attract cruise

“크루즈 유치 마케팅”

Develop tourism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Expand professionalism

“크루즈 전문성 확대”

Reform thinking

“크루즈 인식개선 및 홍보”

+ support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전략과제

- 1 인천 기항 관광상품 개발지원 확대(선사·여행사 인센티브)
- 2 입·출항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 3 크루즈 입항시 항비 감면
- 4 크루즈 선상 홍보 추진(렉처러 행사)

- 1 크루즈터미널 교통 인프라 구축
- 2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 3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 1 월드 크루즈선 유치
- 2 아시아권 크루즈선 유치
- 3 중국 크루즈시장 집중 공략
- 4 해외 및 국내 선사·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 5 국내 개최 크루즈 국제행사 참여
- 6 국내 크루즈선사·여행사 초청 간담회 실시

- 1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추진
- 2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 3 테마크루즈 운영 및 기항지 연합상품 개발
- 4 남북 평화크루즈 개발

- 1 크루즈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 2 인천 소재 대학에 크루즈 전문과정 및 학과 신설
- 3 크루즈버디 사업 활성화

- 1 공무원 교육훈련 크루즈 과정 신설 운영
- 2 크루즈 체험단 운영
- 3 인천 크루즈산업 국제행사 개최
- 4 일반인 대상 팸투어 추진

- 1 인천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2 크루즈 담당 인원 확충 및 전담조직 신설
- 3 크루즈 연관산업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요 지

□ 연차별 추진전략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L	인천 기항 관광상품 개발지원 확대 (선사·여행사 인센티브)	35백만원	35백만원	40백만원	45백만원	50백만원				
	입·출항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지속								
	크루즈 입항시 항비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크루즈 선상 홍보 추진(렉처러 행사)	2회	2회	2회	2회	2회				
E	크루즈터미널 교통인프라 구축 (관광택시, 택시대기, 왕복셔틀, 시내버스, 투어버스)	택시·버스·셔틀 등 노선 구축								
	크루즈터미널 교통인프라 구축 (인천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포함 여부에 따라 기본계획 예타조사, 실시설계 착공 준공 등 절차 착수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환전소·자판기 등 설치, 안내데스크 강화)	편의시설 확충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승객 대기장소 및 승무원 휴식공간 조성)	승객 대기장소, 승무원 휴식공간 조성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시민공원, 노천카페 등 시민개방)	시민공원, 노천카페 등 조성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선용품사업 추진)	벤치마킹 및 실태조사		영세상인 중심 협동 조합 설립 등 기반 구축		선용품 전용센터 조성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해수부 시범사업 및 효과분석(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AMP설치 추진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골든하버 개발)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인천항만공사 주관 사업자 발굴,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공·준공 추진								
A	월드 크루즈선 유치 (구미주 박람회 참석, 포트세일즈)	2회↑	2회↑	2회↑	2회↑	2회↑				
	월드 크루즈선 유치 (연합상품 구성 - 타 시·도 방문, 상품제안, 마케팅)		방문 협의	상품 제안	상품 활성화 (코스개발 등)					
	아시아권 크루즈선 유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포트세일즈 및 우호협약)	2회↑	2회↑	2회↑	2회↑	2회↑				
	중국 크루즈시장 집중 공략 (업무협약 체결, 국제행사 참석, 포트세일즈 참가)	2회↑	2회↑	2회↑	2회↑	2회↑				
	해외 및 국내 선사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구미주, 중화권·중국, 국내 선사·여행사별 별도 추진)	2회↑	3회↑	3회↑	3회↑	3회↑				
	국내 개최하는 크루즈 국제행사 참여 (제주포럼, 트래블마트, 기항지별 세미나 등)	2회↑	2회↑	3회↑	3회↑	3회↑				
	국내 크루즈선사·여행사 초청 간담회 (인천크루즈 소개, 업계 건의청취, 인적네트워크 강화)	1회↑	1회↑	1회↑	2회↑	2회↑				

요 지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D	플라이 앤 크루즈 활성화 추진 (간담회, 벤치마킹, 이동서비스 도입, 상품개발 등)	협업체 구성 싱가폴 벤치마킹		one-stop 수화물 이동서비스 도입		영종 리조트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활성화 추진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신규개발중인 강화코스 집중 홍보)	강화 코스 홍보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군구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코스선정, 여행사 제안)		군구 제안 및 선정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에 제안·홍보				
	테마크루즈 운영 및 기항지 연합상품 개발 (벤치마킹, 기항지간 협의, 상품개발, 제안, 예산확보 등)	마스트 EDM 모형운영	벤치마킹 기항지 간 협의	상품개발 한국관광 공사 등에 제안		정기 운영		
	남북 평화크루즈 개발 (중국 보하이그룹과 '인천~남포~대련 등' 노선개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라 정부건의 및 추진 (인천~남포~대련 등)						
E	크루즈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기항지 관광가이드, 국외 크루즈 전문인솔자 등)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인천 소재 대학에 크루즈 전문과정 및 학과 신설 (벤치마킹, 대학발굴, 중앙정부 요청, 학과신설·지원)			벤치마킹 대학발굴	중앙정부 승인요청	학과 신설 및 행·재정 지원		
	크루즈버디 사업 활성화 (통역, 안내, 관광서비스 제공 지원인력 양성)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R	공무원 교육훈련 크루즈 과정 신설 운영 (크루즈산업 이해, 터미널 소개, 크루즈쉽투어 등)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크루즈 체험단 운영 (인천시민 대상 크루즈 여행기회 제공, 홍보 활동)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인천 크루즈산업 국제행사 개최 (제주·부산 벤치마킹, 국시비확보, 행사개최)	벤치마킹 국비확보 해양관광포럼 확대 개최		1회	1회	1회		
	일반인 대상 팸투어 추진 (선사·여행사가 아닌 일반인 대상 기항관광지 소개)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	인천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유관기관 협업체, 인천내 기관 거버넌스, 주요 지자체간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협업체 활성화	인천기관 거버넌스	기항지간 거버넌스				
	크루즈 담당 인원 확충 및 전담조직 신설 (공사인력 확충, 市 전문보직, 크루즈전담팀 신설, 센터설립 검토)			공사 1명 전담 市 전문보직 지정	공사 2명 전담		크루즈 전담팀 신설	크루즈 센터 검토
	크루즈 연관산업 조사 및 데이터 구축 (단독 설문, 벤치마킹, 행정통계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통계관리)	크루즈 설문조사 매년 실시(인천 단독)						
		부산시 벤치마킹	행정통계 개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DB구축	

□ 연차별 사업예산

○ 총사업비 : 2,150백만원

사업예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300백만원	350백만원	400백만원	500백만원	600백만원

※ [비고] 2019년 타 시·도 예산(위탁사업비) : 인천 300백만원, 부산 600백만원, 제주 700백만원

□ 향후계획 및 부서별 협조

- 인천 크루즈산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매년 초) / 해양항만과
- 연차별 크루즈 사업예산 반영 협조 / 예산담당관
- 크루즈 해외마케팅 등을 위한 공무원외여행 지원 협조 / 국제협력과
- 관광공사 크루즈 전담인원 연차별 확충 및 중장기 전담조직 신설 협조 / 관광진흥과

순 서

I. 크루즈 정의	6
II. 크루즈산업 현황 및 전망	7
III.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9
1. 대외적 여건	10
2. 대내적 여건	11
IV. 비전과 목표	15
V. 연차별 추진전략	16
VI. 연차별 사업예산	17
VII. 전략과제별 세부내용	18
1. Last good policy (양질의 크루즈정책 지속)	18
2. Enhance terminal (크루즈터미널 기능 강화) ...	21
3. Attract cruise (크루즈 유치 마케팅)	26
4. Develop tourism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30
5. Expand professionalism (크루즈 전문성 확대)	34
6. Reform thinking (크루즈 인식개선 및 홍보) ...	37
7. Support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40
VIII. 기대효과	44
IX. 향후계획	44
X. 부서별 협조사항	44

1. 크루즈의 개념적 정의

○ 크루즈는

- 국내외를 순항하며 호텔, 리조트형 선박 및 기항지에서 순수 관광 목적으로 숙박·음식·위락 등을 제공받으며 여행하는 것

※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인천연구원, 2019)

○ 크루즈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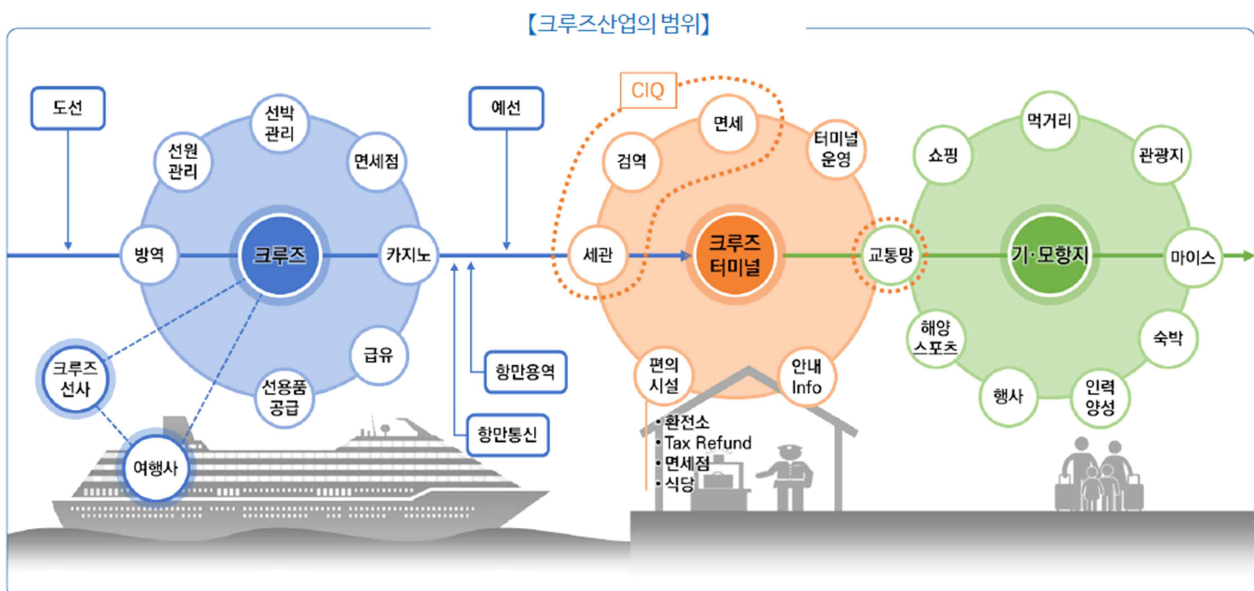
-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크루즈산업의 범위

- 크루즈 산업은 크게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된 산업, 크루즈선의 건조 및 수리와 관련된 조선업, 크루즈터미널 관련 산업, 크루즈 관광지에서의 산업으로 대별됨.

- 카지노, 면세점, 선용품, 터미널 건설 및 운영, CIQ, 관광업, 운송 서비스, MICE 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연계되어 있음.



II

크루즈산업 현황 및 전망

- (세계 크루즈시장의 성장) 세계 크루즈시장은 2008년부터 향후 2027년까지 연평균 4%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약 3,8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성장) 2018년 기준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15.9%의 비중(454만명)이며, 중국 중심¹⁾으로 매년 9.3%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 상하이 우송커터미널(25만톤급), 텐진크루즈터미널(22만톤급) 등 대규모 터미널을 운영중이며 2019년 광저우에 국제크루즈항 2선석 추가 준공 계획임. 카니발, 로얄캐리비언, 스타크루즈 등 글로벌 3개선사 43척 운항중이며, 중국계 크루즈선박의 비중 증가로 아시아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6개 거점항만²⁾에 대해 크루즈 선사와 협업체계 구축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외국 크루즈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 cruise-fly, fly-cruise 활성화 전략 및 크루즈발전 기금을 조성
 - (대만) 크루즈항만 시설의 최신화, 지역간 파트너십 등을 통해 크루즈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1) 중국 52%, 대만 8.6%, 싱가포르 8.1%, 일본 5.9%, 홍콩 5.5%, 인도 4.8% 등<2017 기준>

2) 요코하마(카니발,NYK), 시미즈(젠팅), 사세보(카니발), 야쓰시로(로열캐리비언), 모토(젠팅), 히라라(카니발)

○ (우리나라 크루즈 시장의 성장)

- 2007년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2018년의 경우 중국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주와 인천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
- 우리나라는 위치적 특성상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경유하는 기항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 외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유치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인천) 전국대비 점유율에서 기항횟수는 2007년 4.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부산,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7.6%로 우리나라 주요 크루즈 기항지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향후 크루즈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기반 중심으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함. 아울러, 서울 등 타지로 빠져나가는 크루즈관광객을 인천으로 유도하여 인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 필요함.

III

정책여건 및 주요지표 분석

내부(internal)

SWOT 분석 적용을 통한 인천 크루즈산업 여건 분석

외부(External)

Strength(강점)

- 인천공항, 국제페리, 지하철 등 연계 교통인프라 우수
- 수도권 인접으로 관광자원 및 잠재고객 풍부
-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 구축
- 중국 주요 도시(동북부)와 연계성
- 안전한 도시 이미지 *

* 치안 만족도 91.4%

Weakness(약점)

- 인천지역 브랜드 및 관광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선용품업 등 연관산업 인프라 부족
- 서울 등 타지역으로 관광객 이탈
- 지역사회 크루즈 인지 및 관심 부족
- 인천 크루즈터미널 규모 및 불편한 교통 인프라
- 국적 크루즈선 부재

Opportunity(기회)

- 아시아(중국)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
- 평화(남북) 크루즈 사업 가능성
-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상승
- 국내 크루즈 내수인구 증가(특히, 수도권)

S-O 전략(강화)

- 중국, 일본, 대만 등 다양한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확대
- Fly&Cruise, Ferry&Cruise 상품 개발
- 평화 및 테마크루즈 상품 개발
- 가족, 여성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안전, 청결 등을 강조)

W-O 전략(역량강화)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마련 (현안해결)
- 인천형 기항 관광프로그램 개발
- 인천시 및 크루즈 산업 인지도 개선 사업
- 선용품종합센터, 크루즈 인력 양성사업 추진
- 인천시 랜드마크 개발

Threat(위협)

- 크루즈상품 구성을 위한 여행일정 구성 곤란
- 국내 및 인접 국가들의 크루즈항만 경쟁구도
- 주변국가와의 외부 환경에 민감
- 중국 관광객에 대한 높은 의존

S-T 전략(위험극복)

- 지역간 협력을 통해 연안크루즈 등 관광 연계
- 중국 동북부 크루즈 연계 마케팅 강화
- 다양한 국가간 협력 및 연계 크루즈상품 개발
- 유관기관 공동 크루즈 및 관련 분야 인센티브 정책 수립

W-T 전략(위험회피)

- 국내 항만들 및 유관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장기)
 - 장거리 크루즈 상품 개발
 - 글로벌선사 MOU 및 중국 여행사 지점 유치
 - 크루즈 협의체* 구성
- * (국제)한중일, (국내)지자체 및 수도권, (기관)유관기관

1. 대외적 여건

□ 기회(Opportunity) 차원

○ 아시아(중국) 크루즈관광객의 증가

-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싱가포르가 1990년대부터 동남아 시장의 크루즈 허브 기능을 해왔으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2018년 기준 전세계 크루즈 시장의 1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평화(남북) 크루즈사업 가능성

- 해상을 통한 금강산 관광에서 남북크루즈 개념 도입, 1998년 시작하여 2004년 중단 시까지 55만명이 참여하는 가시적인 성과 거둠.
- 최근 중국 선사가 중국~북한~인천~중국을 잇는 크루즈 노선³⁾을 제시한 사례도 있어 잠재적인 시장성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상승

-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드라마, K-pop⁴⁾, K-culture 등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들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한류 커뮤니티 현황을 보면 2014~2016년 매해 200여개가 새롭게 생겼고 2017년부터는 한류의 확장세가 약했던 북미와 유럽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크루즈 내수인구 증가(특히, 수도권 중심)

- '18년 상반기 국내에서 크루즈여행을 위해 출국한 관광객은 10,398명으로, 전년반기 대비 부산은 53%, 제주는 △89.9%, 인천은 266.8% 증감 실적⁵⁾을 보이는 등 수도권 중심의 크루즈 내수인구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3) 2016.1월 중국 산둥성의 보하이 크루즈 선사가 칭다오~남포(평양)~인천~칭다오 노선을 1인당 약 37만8천원에 모두 판매했으나, 우리 정부의 불허로 실제 미실행된 사례가 있음.

4)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19.10월): 외국인 18만7천명이 방문, 직·간접 경제효과 약6천억원

5) 최근3년간 국내 크루즈 실태분석(동남지방통계청, 2018.9월)

□ 위협(Threat) 차원

○ 크루즈상품 구성을 위한 여행일정 구성 곤란

- 아시아 크루즈 주요 시장인 남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인천은 거리가 멀어 크루즈 여행일정 구성⁶⁾이 어려움.

○ 국내 및 인접 국가들의 크루즈항만 경쟁구도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한 크루즈산업 육성, 일본의 크루즈 거점 육성 항만정책 시행,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크루즈 센터 항만개발 등 인접 국가들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주요 기항지별로 크루즈 유치를 위해 선사 및 여행사에 각종 인센티브⁷⁾ 지급, 각종 관광편의 제공(ex.무료셔틀 운행)하는 등 과다 경쟁 문제가 발생함.

○ 주변 국가와의 외부환경에 민감

- 최근 중국의 사드 문제, 일본의 엔저현상 및 관광상륙 허가제 시행 등으로 크루즈선박의 입항 취소가 급증하여 2017~2018년 인천항 전체 크루즈 입항횟수⁸⁾는 크게 감소함.

○ 중국 관광객에 대한 높은 의존

- 인천의 크루즈관광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3~2014년에는 전체 크루즈관광객 대비 중국인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2. 대내적 여건

□ 강점(Strength) 차원

6) 크루즈여행은 4박6일 단기코스가 가장 인기가 많음.

7) 부산(90백만원), 제주(10백만원), 여수(70백만원), 인천(35백만원) 등

8) 13년(95항차), 14년(92항차), 15년(53항차), 16년(62항차), 17년(17항차), 18년(10항차)

○ 인천공항, 국제페리, 지하철 등 연계 교통인프라 우수

- 인천국제공항과 신국제여객터미널⁹⁾이 각각 자차 30분거리, 1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1호선 지하철역이 자차 11분거리에 위치해 있음.

○ 수도권 인접으로 관광자원 및 잠재고객 풍부

- 인천항은 수도권 유일의 크루즈항으로 수도 서울과 경기도가 인접해 있어 체험, 문화유산, 쇼핑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수도권 2,500만명이 배후에 있어 크루즈관광 잠재고객이 풍부함.

○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 구축

- 22만5천톤급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의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2019.4.26. 개장하여 세계 크루즈선 대형화 추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

○ 중국 주요 도시(동북부)와 연계성

- 인천항은 북중국(천진, 청도, 대련 등)에 가장 인접한 국내 항만으로서 정기 페리 항로 10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어 매년 수많은 여객이 이용하고 있음.

※ `19년 여객실적 : 100만명 이상 이용

-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크루즈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¹⁰⁾을 통해 양 도시간 지속적인 우호관계 협력 유지가 필요함.

○ 안전한 도시 이미지

- 기항지별 치안만족도¹¹⁾가 5점 만점에 부산은 4.09점, 제주는 3.68점인데 반해 인천은 4.33점으로, 타 기항도시에 비해 높아 외국인에게 안전한 도시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음.

9) 인천국제공항(연간 7,000만명이상 이용), 신국제여객터미널(연간 100만명이상 이용 예상, `20.상반기 개장)

10) 2019년 5월 중국 청도시와 인천시간 크루즈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11) 2018년 외래 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췌(한국관광공사)

□ 약점(Weakness) 차원

○ 인천지역 브랜드 및 관광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글로벌 선사 4곳¹²⁾에서 진행하는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의 경우 부산 39개, 제주 18개, 인천 7개임.
- 인천 7개 관광프로그램 중 4개는 서울에서 진행되어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나머지 3개 중 1개는 DMZ 및 제3땅굴 탐방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대부분 진행되어 인천 독립적인 기항 관광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선용품업 등 연관산업 인프라 부족

- 인천항 입항 선박은 대부분 부산지역 선용품업체를 이용하고 있음.

※ 선용품 등록업체수 : 인천(176개소, 2019기준), 부산(1,413개소, 2017기준)

※ 세관에 신고된 선용품 현황(2018기준) : 인천(2.2%), 제주(1.8%), 부산(96%)

- 일부 인천지역 선용품업체에 주문한 경우에도 부산 및 수도권 지역에서 선용품을 구입하여 직접운송·보관 후 공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인천 선용품업 인프라가 부족함.

○ 서울 등 타지역으로 관광객 이탈

- 크루즈관광객 체류시간은 8~10시간으로 짧아, 입항시 쇼핑 등을 위해 바로 서울 등으로 빠져나가며, 약 12~17% 정도만이 인천에서 머무름.
- 중국 사드 제재조치 이후인 '17년부터는 인천관광객이 50%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이는 중국관광객 급감에 따른 상대적 상승 효과임.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입항횟수		95회	92회	52회	62회	17회	10회
전체 입항인원		247,051명	255,130명	115,806명	213,415명	43,476명	29,886명
인천 관광객	유치실적	40,058명	31,559명	19,808명	38,235명	22,748명	15,206명
	비율	16.2%	12.4%	17.1%	17.9%	52.3%	50.9%

12) Holland Cruise, Celebrity Cruise, MSC Cruise, Costa Cruise

○ 지역사회 크루즈 인지 및 관심 부족

- 2017년 기준 한국 아웃바운드 크루즈관광객은 4~5만명으로 전체 출국자 대비 1%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어 기반이 협소함.
- 또한, 인천에서 모항크루즈(코스타세레나)가 2019년 2회 출발하였으나 각종 할인 프로모션, 장기간에 걸친 상품판매 등을 통해 간신히 모객에 성공하는 등 크루즈 인지 및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태임.

○ 인천 크루즈터미널 규모 및 불편한 교통 인프라

- 세계 최대규모인 22만5천톤급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하나 그에 비해 크루즈터미널 내부는 상당히 협소하며 환전소,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할 공간 등이 부족함.
- 크루즈터미널에서 도보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며, 콜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개별관광객의 관광 수용태세 강화가 필요함.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도보 10분 이내에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수 이용 가능

○ 국적 크루즈선 부재

- 2017년 기준 중국은 6개선사 18척¹³⁾의 크루즈 선박이 중국 도시를 모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1989년부터 국적 크루즈선사를 육성했고, 내수시장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음. 2015년 기준 4개선사 5척¹⁴⁾의 국적 크루즈선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운영하는 국적 크루즈선이 아직까지 1척도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로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전략에 한계가 있음.

13) 코스타(세레나, 빅토리아, 포튜나), 로얄 캐리비안(퀀텀, 마리너, 보이저, 레전즈, 오베이션), 스타(슈퍼스타 리브라, 슈퍼스타 버고, 스타 파이스스, 젠딩드림), 지중해(리리카), 노르웨이NCL(노르웨이저안 조이)

14) 유선크루즈(아스카II), 크리스탈크루즈(심포니, 세레니티), 상선미츠이객선(니혼마루), 일본크루즈객선(퍼시픽비너스)

비전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 문호도시 인천

- 2025년 크루즈산업의 **LEADER*** 를 꿈꾸다! -정책
목표2025 크루즈 **100항차<30만명>** 유치 및 명품 크루즈항 조성* 인천 경제유발효과 **260억원** 창출 <2025년 크루즈관광객 중 10만명 인천유치 기준>

추진전략

Last good policy

“양질의 크루즈정책 지속”

Enhance terminal

“크루즈터미널 기능 강화”

Attract cruise

“크루즈 유치 마케팅”

Develop tourism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Expand professionalism

“크루즈 전문성 확대”

Reform thinking

“크루즈 인식개선 및 홍보”

+ support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전략과제

- ① 인천 기항 관광상품 개발지원 확대(선사·여행사 인센티브)
- ② 입·출항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 ③ 크루즈 입항시 항비 감면
- ④ 크루즈 선상 홍보 추진(렉처러 행사)

- ① 크루즈터미널 교통 인프라 구축
- ②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 ③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 ① 월드 크루즈선 유치
- ② 아시아권 크루즈선 유치
- ③ 중국 크루즈시장 집중 공략
- ④ 해외 및 국내 선사·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 ⑤ 국내 개최 크루즈 국제행사 참여
- ⑥ 국내 크루즈선사·여행사 초청 간담회 실시

- ①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추진
- ②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 ③ 테마크루즈 운영 및 기항지 연합상품 개발
- ④ 남북 평화크루즈 개발

- ① 크루즈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 ② 인천 소재 대학에 크루즈 전문과정 및 학과 신설
- ③ 크루즈버디 사업 활성화

- ① 공무원 교육훈련 크루즈 과정 신설 운영
- ② 크루즈 체험단 운영
- ③ 인천 크루즈산업 국제행사 개최
- ④ 일반인 대상 팸투어 추진

- ① 인천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② 크루즈 담당 인원 확충 및 전담조직 신설
- ③ 크루즈 연관산업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L	인천 기항 관광상품 개발지원 확대 (선사·여행사 인센티브)	35백만원	35백만원	40백만원	45백만원	50백만원		
	입·출항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지속						
	크루즈 입항시 항비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크루즈 선상 홍보 추진(렉처러 행사)	2회	2회	2회	2회	2회		
E	크루즈터미널 교통인프라 구축 (관광택시, 택시대기, 왕복셔틀, 시내버스, 투어버스)	택시·버스·셔틀 등 노선 구축						
	크루즈터미널 교통인프라 구축 (인천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포함 여부에 따라 기본계획 예타조사 실시설계 착공 준공 등 절차 착수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환전소·자판기 등 설치, 안내데스크 강화)	편의시설 확충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승객 대기장소 및 승무원 휴식공간 조성)	승객 대기장소, 승무원 휴식공간 조성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시민공원, 노천카페 등 시민개방)	시민공원, 노천카페 등 조성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선용품사업 추진)	벤치마킹 및 실태조사		영세상인 중심 협동조합 설립 등 기반 구축		선용품 전용센터 조성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해수부 시범사업 및 효과분석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AMP설치 추진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골든하버 개발)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인천항만공사 주관 사업자 발굴,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공·준공 추진						
A	월드 크루즈선 유치 (구미주 박람회 참석, 포트세일즈)	2회↑	2회↑	2회↑	2회↑	2회↑		
	월드 크루즈선 유치 (연합상품 구성 - 타 시·도 방문, 상품제안, 마케팅)		방문 협의	상품 제안	상품 활성화 (코스개발 등)			
	아시아권 크루즈선 유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포트세일즈 및 우호협약)	2회↑	2회↑	2회↑	2회↑	2회↑		
	중국 크루즈시장 집중 공략 (업무협약 체결, 국제행사 참석, 포트세일즈 참가)	2회↑	2회↑	2회↑	2회↑	2회↑		
	해외 및 국내 선사·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구미주, 중화권·중국, 국내 선사·여행사별 별도 추진)	2회↑	3회↑	3회↑	3회↑	3회↑		
	국내 개최하는 크루즈 국제행사 참여 (제주포럼, 트래블마트, 기항지별 세미나 등)	2회↑	2회↑	3회↑	3회↑	3회↑		
	국내 크루즈선사·여행사 초청 간담회 (인천크루즈 소개, 업계 건의청취, 인적네트워크 강화)	1회↑	1회↑	1회↑	2회↑	2회↑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D	플라이 앤 크루즈 활성화 추진 (간담회, 벤치마킹, 이동서비스 도입, 상품개발 등)	협업체 구성, 싱가포르 벤치마킹		one-stop 수화물 이동서비스 도입		영종 리조트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활성화 추진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신규개발중인 강화코스 집중 홍보)	강화코스 홍보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군구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코스선정, 여행사 제안)		군구 제안 및 선정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에 제안·홍보				
	테마크루즈 운영 및 기항지 연합상품 개발 (벤치마킹, 기항지간 협의, 상품개발, 제안, 예산확보 등)	마스트롯 DM 모형운영	벤치마킹 기항지간 협의	상품개발, 한국관광공사 등에 제안		정기 운영		
	남북 평화크루즈 개발 (중국 보하이그룹과 '인천~남포~대련 등' 노선개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라 정부건의 및 추진 (인천~남포~대련 등)						
E	크루즈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기항지 관광가이드, 국외 크루즈 전문인솔자 등)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인천 소재 대학에 크루즈 전문과정 및 학과 신설 (벤치마킹, 대학발굴, 중앙정부 요청, 학과신설·지원)				벤치마킹 대학발굴	중앙정부 승인요청	학과 신설 및 행·재정 지원	
	크루즈버디 사업 활성화 (통역, 안내, 관광서비스 제공 지원인력 양성)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R	공무원 교육훈련 크루즈 과정 신설 운영 (크루즈산업 이해, 터미널 소개, 크루즈칩투어 등)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크루즈 체험단 운영 (인천시민 대상 크루즈 여행기회 제공, 홍보 활동)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인천 크루즈산업 국제행사 개최 (제주·부산 벤치마킹, 국시비확보, 행사개최)	벤치마킹, 국비확보, 한항해운포럼학대검토		1회	1회	1회		
	일반인 대상 팸투어 추진 (선사·여행사가 아닌 일반인 대상 기항관광지 소개)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	인천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유관기관 협업체 인천대 기관 거버넌스, 주요 자자책간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협업체 활성화	인천기관 거버넌스	기항지간 거버넌스				
	크루즈 담당 인원 확충 및 전담조직 신설 (공사인력 확충, 市 전문보직, 크루즈전담팀 신설, 센터설립 검토)		공사 1명 전담, 市 전문보직 지정	공사 2명 전담		크루즈 전담팀 신설	크루즈 센터 검토	
	크루즈 연관산업 조사 및 데이터 구축 (단독 설문, 벤치마킹, 행정통계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통계관리)	크루즈 설문조사 매년 실시(인천 단독)						
		부산시 벤치마킹	행정통계 개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DB구축		

연차별 사업예산

○ 총사업비 : 2,150백만원

- 기반 구축에 따른 시설비 등 공사비는 제외

사업예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300백만원	350백만원	400백만원	500백만원	600백만원

※ 2019년 타 시·도 예산(위탁사업비) : 인천(300백만원), 부산(600백만원), 제주(700백만원)

1

Last good policy 『양질의 크루즈정책 지속』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하는 양질의 크루즈 정책을 지속하여
인천 크루즈 인지도 제고 및 신뢰 구축

1. 인천 기항 관광상품 개발지원 확대(선사·여행사 인센티브)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적극적인 크루즈 선사 유치 및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유인책으로 타·시도¹⁵⁾에서도 추진하고 있음

□ 추진내용

- 대상 : 인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 내용
 - 한해동안 인천항을 찾은 우수 크루즈 선사(20백만원)
 - 인천 관광지를 운영한 여행사(버스비 30만원/대, 최대 15백만원)
- 부산 등에 비해 인센티브 지급이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5년간
50백만원까지 연차별 확대 추진 필요
 - '20~'21년(35백만원), '22년(40백만원), '23년(45백만원), '24년(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L	인천 기항 관광상품 개발지원 확대 (선사·여행사 인센티브)	35백 만원	35백 만원	40백 만원	45백 만원	50백 만원		

15) 부산(90백만원), 제주(10백만원), 강원(모든 입항선박 최대 1천만원), 여수(70백만원) 등

2. 입·출항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크루즈 선사 및 승객에게 인천을 알리고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이미지 및 재방문을 제고

☐ 추진내용

- 시기/장소 : 크루즈 입·출항시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 대상 : 크루즈관광객 및 승무원
- 내용
 - 환영행사 : 전통놀이 및 공연, 홍보부스 및 팝업스토어 운영 등
 - 셔틀버스 : FIT, 승무원 대상 인천 관광지 셔틀운영(30만원/대)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L	입·출항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지속						

3. 크루즈 입항시 항비 감면 - 항만공사

☐ 필요성

- 항비 감면은 기항지별 공통사항으로 크루즈 선사에 대한 신뢰 구축과 항만활성화를 위해 지속 필요

※ 해양수산부고시(2019.12.31.)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항(부산항, 제주항, 인천항 등)에 동일하게 적용

☐ 추진내용

- 대상 :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선사
- 내용 : 선박 입출항료(135원/톤), 접안료(10톤당 358원), 터미널사용료(3,300원/명) 등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L	크루즈 입항시 항비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30% 감면		

※ 적극적 유치를 위한 항비 추가 감면 검토(인천항만공사)

4. 크루즈 선상 홍보 추진(렉처러 행사) - 市[관광공사]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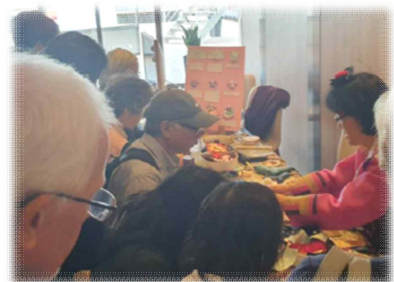
-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의 승객하선율을 높이고 크루즈를 탑승한 관광객에게 인천 관광지 홍보 필요

※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초청 간담회('19.5월) 제안사항임.

□ 추진내용

-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의 전항지에서 탑승하여 인천 기항 관광지 홍보 및 체험행사 실시(매년 2회 실시-상하반기)

※ '19년 인천으로 입항한 밀레니엄셀러브러티호에서 전통체험을 포함한 렉처러 행사를 시범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음.



크루즈 렉처러 행사 (밀레니엄셀러브러티, '19.10월)

- 크루즈 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만톤급 이상 대형 크루즈선 위주로 행사 진행

- 체험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인으로 인천 기항관광지 홍보 극대화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L	크루즈 선상 홍보 추진(렉처러 행사)	2회	2회	2회	2회	2회		

2

Enhance terminal 『크루즈터미널 기능 강화』

교통인프라 등 터미널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크루즈 입항 편의제고 및 연관산업 활성화 추진

1. 크루즈터미널 교통인프라 구축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신규 개장한 크루즈터미널은 송도 9공구 끝단에 위치하며 대중 교통편이 전무한 상태로, 개별관광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 시급

□ 추진내용

- 자유여행을 원하는 개별관광객 및 승무원을 위한 **관광택시** 도입 및 **택시대기** 시스템 구축
 - 관광택시 : 부산 관광택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천항에 도입
 - 택시대기 : 택시운송조합(개인, 법인 등)과 협의 및 입항정보 사전 제공

사례

■ 부산 관광택시 사례

- 부산시 관광택시는 권역별 코스와 테마별 코스로 구분하여 최소 1시간 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권역별 코스 : 동부산코스(해운대, 광안리 등), 중부산코스(서면, 남포동 등), 서부산코스(송도, 다대포 등)
 - 테마별 코스 : 야경투어, 쇼핑투어, 야시장투어
- 코스 및 차량 크기는 조절되며 요금은 시간을 기준으로하며 주차요금은 별도임.

구분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일반택시	2만원	5만원	8만원	15만원
승합택시(13인승 이하)	4만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고급택시(고급 세단형)	-	15만원	20만원	28만원

자료: 부산관광택시 홈페이지(www.bsst.co.kr)

- 지하철 및 인근 관광지 방문을 원하는 승객을 위한 **왕복셔틀** 운영
-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개설
-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연계한 **인천시티투어버스 크루즈터미널** 연장
-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¹⁶⁾** 구축(장기과제)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E	크루즈터미널 교통인프라 구축 (관광택시, 택시대기, 왕복셔틀, 시내버스, 투어버스)	택시·버스·셔틀 등 노선 구축						
E	크루즈터미널 교통인프라 구축 (인천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포함 여부에 따라 기본계획 여타조사 실시설계 착공 준공 등 절차 착수					

2.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 **항만공사**

□ 필요성

- 개장한 크루즈터미널에는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터미널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추진내용

-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환전소 부스, 자판기 등 설치
- 안내데스크 기능 강화
 - 관광객 규모에 따라 안내인력 탄력적 운영(크루즈버디 보장 등)
 - 안내데스크 코너별 분리(ShuttleBus/Seoul/Taxi)
 - 안내서비스 강화(개별관광객 맞춤 관광정보 제공, 지면가이드북 제공 등)
- 승객 대기장소, 승무원 휴식공간, 선사 전용 라운지 조성
 - 크루즈터미널 공간 협소에 따라 인근에 가건물 신축 또는 전용셔틀, 수평형 무빙워크 등을 이용하여 신국제여객터미널과의 시설 공유

16)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8호(2018.12.13.)]에 따르면 대상노선이 아닌 후보노선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 연장 건의 필요

사례

■ 바르셀로나 크루즈터미널 사례

- 유럽의 주요 크루즈 기항지인 바르셀로나항은 초기 건립 당시 텐트와 흡사한 가건물을 마련하여 임시 터미널로 활용하였음.
- 이후 크루즈선의 기항 횟수가 증가추세이긴 했으나 크루즈산업의 대한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 최소투자 최대효과를 목적으로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창고 상옥형태의 크루즈 터미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했음.



자료: 인천항만공사(2011), 세계 TOP 크루즈기항지 스페인-바르셀로나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E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환전소·자판기 등 설치, 안내데스크 강화)	편의시설 확충						
E	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승객 대기장소 및 승무원 휴식공간 조성)	승객 대기장소, 승무원 휴식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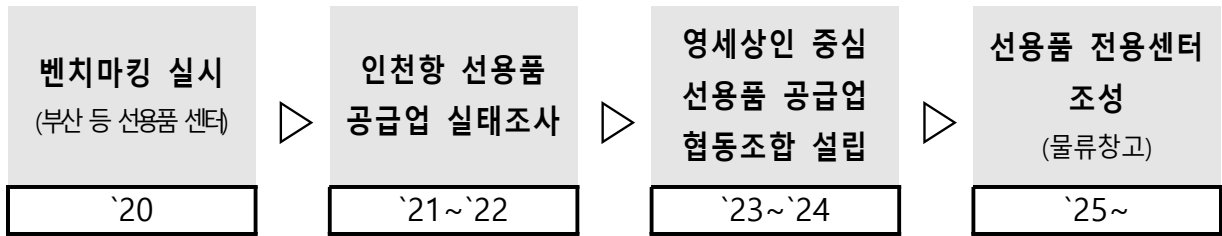
3.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인천대교, 석양, 바다가 어루러지는 아름다운 뷰를 적극 활용하고 크루즈 연계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배후부지 인프라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시민공원, 공연무대장, 노천카페 등 크루즈터미널 시민 개방(등대 주변)
 - ※ 송도 솔찬공원(케이슨24) 사례 분석, 입항일정에 맞춰 공연 등 개최 검토 등
-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대비한 선용품 사업 추진



※ 제주 : `17~`19년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총사업비 78억원(국비 39억, 도비 39억)

- 항만별 선용품 공급업 등록 현황

구분	인천항	부산항	여수·광양항	평택항
업체수(개)	176	1,413	82	71
기준연도	2019년 상반기	2017년	2019년 상반기	2019년

자료: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2019), 유관기관 업·단체

2) 부산항만공사(2019), 2018년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사는 대부분 부산지역 선용품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선용품 공급업 실태조사

● 인천항에 등록된 선용품 공급업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연간 1회)

- 현재 인천항에 등록된 선용품 공급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항만(크루즈)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
- 인천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선용품을 찾는 조사를 선행한 후 관련 선용품을 육성해야 함.

※ 인천 강화군의 쌀, 고구마 등 농산물, 옹진군의 꽃게 등 해산물 등 식자재 제공 가능

- 선용품 공급업 협동조합 추진

● 영세한 선용품 공급업체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산업 상생방안 제시

- 인천항의 선용품 공급업은 업체 수나 규모가 매우 영세한 편으로 크루즈 선사에 선용품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임.
- 선용품 공급업의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추진시킬 경우 작업장 공동임차,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등의 공동구매, 전시회 및 박람회 공동참여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할 것임.
- 인천 선용품 공급업 협동조합(가칭) 설립시 인천시 또는 인천항만공사에서 국제기준 시설확보, 외국 전문기관 선용품 인증 절차 등을 지원.

※ 크루즈 선용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선사가 제시하는 자격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중 다품종 다량의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 함(<그림 6-3> 참고).

그림 6-3 | Carnival Cruise Lines 공급업자 신청단계

Step1	공급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항만에 보안 등급을 받기 위한 보안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해상운송보안법에 따라 해안 경비대의 안전 인증 승인을 받음(미국 사례). 이 인증서를 입찰서를 제출 전에 제공하여야 함.
Step2	마이애미 본사 구매 부서에 문의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받음.
Step3	입찰서에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이용하는 각 항만에 선용품 공급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특히 부패하기 쉬운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의를 요함.
Step4	100여척의 배에 사용될 많은 양의 부패하지 않는 용품에 대해서는 큰 할인을 제공할 예정임. 많은 주문과 배달을 적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함.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라인 국제 교류 협회 같은 산업 협회에 가입함. -세미나, 관련 출판회 등 협회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은 주요 의사 결정자와 연결이 가능해짐. • 크루즈 라인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을 찾고 있음. -신선하며, 유기농산물, 치즈, 맥주, 와인, 빵과 꽃 등 뿐만 아니라 코미디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연극 제작, 명상, 요가, 마사지, 스파 서비스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도 관심이 있음

자료: 유주영(2015), 인천지역 크루즈 선용품 유통시장 기초연구, 인천연구원.

○ 크루즈터미널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¹⁷⁾ 설치 추진

-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인천항, 부산항, 여수·광양항에서 2020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추진 계획임

※ 인천항은 신국제여객터미널 8개 선석 중 2개 선석에 고압 AMP설치사업 추진('20년 완공계획)

○ 쇼핑몰, 카지노, 호텔 등이 집적된 골든하버 개발¹⁸⁾ 추진(중장기과제)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E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시민공원, 노천카페 등 시민개방)	시민공원, 노천카페 등 조성						
E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선용품사업 추진)	벤치마킹 및 실태조사			영세인 중심 협동조합 설립 등 기반 구축		선용품 전용센터 조성	
E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해수부 시범사업 및 효과분석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AMP설치 추진			
E	크루즈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구축 (골든하버 개발)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인천항만공사 주관 사업자 발굴,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공·준공 추진						

17)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여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

18) 배후부지 조성은 모두 준공(1단계-'18.11월, 2단계-'19.9월)하였으며, 인천항만공사에서 국제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추진 계획임 (규모: 428,823㎡)

국내외 선사 및 여행사 대상 마케팅 활동 강화로 크루즈선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1. 월드 크루즈선 유치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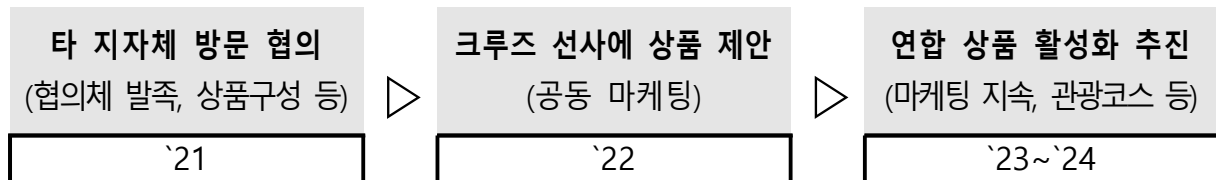
□ 필요성

- 2027년까지 약 3천8백만명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전망하는 세계 크루즈 시장에 인천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큼
- 쇼핑 목적이 아닌 전통문화, 지역축제 등을 보기 위해 인천을 찾는 구미주 크루즈선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입항인원 대비 인천관광 비율이 중국크루즈선보다 약 35% 높음(월드 약 50%, 중국 약 15%)

□ 추진내용

- 매년 구미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¹⁹⁾ 참석 및 포트세일즈 실시
- 인천과 타 기항지간 연합상품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기항지간 과다 경쟁 방지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구미주에 매력적인 코스 제안)



19) 영국(런던), 미국(마이애미)에서 세계적인 크루즈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년에는 해수부 주관으로 구미주 포트세일즈 실시 예정임.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월드 크루즈선 유치 (구미주 박람회 참석, 포트세일즈)	2회↑	2회↑	2회↑	2회↑	2회↑		
	월드 크루즈선 유치 (연합상품 구성 - 타 시·도 방문, 상품제안, 마케팅)		방문 협의	상품 제안	상품 활성화 (코스개발 등)			

2. 아시아권 크루즈선 유치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아시아 시장에서 항로 다변화 모색 등 중국 중심²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크루즈 시장 확보

□ 추진내용

- 중국 외 아시아에서 점유율²¹⁾이 높은 대만, 싱가포르, 홍콩 시장 등 포트세일즈 실시 및 우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매년 실시하는 해수부 주관 아시아권 포트세일즈 참가
 - 2~3개 지자체 연합 포트세일즈 구상(연합상품 소개 등)
 -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도시 간 우호협약 체결
- ※ `19년에는 인천시와 대만 기륭시 간 크루즈 우호협력 체결을 한 바 있음.
- 아시아 소재 선사 방문을 통해 keyman인 아이티너러리 플래너(일정담당), 포트 오퍼레이션(기술담당), 쇼어 익스커션(관광담당) 직접 면담 및 마케팅 실시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아시아권 크루즈선 유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포트세일즈 및 우호협약)	2회↑	2회↑	2회↑	2회↑	2회↑		

20)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4불조치(`17.3월)로 입항 급감(16년 62항차, 17년 17항차, 18년 10항차)

21) 아시아 점유율 : 대만(9%), 싱가포르(7%), 일본(6%), 홍콩(6%), 말레이시아(5%)

3. 중국 크루즈시장 집중 공략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인천항 최대 고객인 중국과 지속적인 우호협력 강화를 통해 사드 해제에 대비 필요

☐ 추진내용

- 중국 주요 크루즈항 도시와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행사 참석 등 교류
 - ※ `19년 칭다오시와 크루즈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협약의 일환으로 같은 해에 칭다오 주관 국제행사에 참여한 바 있음.
- 매년 실시하는 해수부 주관 중국 포트세일즈 참가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중국 크루즈시장 집중 공략 (업무협약 체결, 국제행사 참석, 포트세일즈 참가)	2회↑	2회↑	2회↑	2회↑	2회↑		

4. 해외 및 국내 선사·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선사 및 여행사 크루즈 관계자들 초청 인천 팸투어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소개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 도모
- 크루즈 관계자 팸투어 실시로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를 효과적으로 홍보

☐ 추진내용

- 新 크루즈터미널을 견학하고 관광 체험을 통해 인천 관광 홍보 및 신규코스 개발 등과 연계 추진
 - 각 나라별 관광 기호에 맞춘 차별화된 팸투어 추진(연 2회이상)
 - ※ 구미주(전통 선호)와 중화권·중국(쇼핑 선호) 구분 실시
 - 해외 선사·여행사 관계자 중 상품기획자 등 핵심인물 위주로 초청
 - 국내 소재 선사·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별도 추진(연 1회이상)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해외 및 국내 선사·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 (구미주, 중화권·중국, 국내 선사·여행사별 별도 추진)	2회↑	3회↑	3회↑	3회↑	3회↑		

5. 국내 개최하는 크루즈 국제행사 참여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국내·외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항 및 관광지 소개하는 기회 마련

□ 추진내용

- 국내에서 개최하는 포럼, 세미나 등 국제행사²²⁾에 참여(연 3회이상)
 - 국제행사 참여로 지자체, 공사·공단, 세계 각 국 크루즈선사·여행사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 포럼 등 참여로 국내·외 크루즈 최신 동향 파악
 - 크루즈 선사·여행사 대상 비즈니스 마케팅 실시로 크루즈 유치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국내 개최하는 크루즈 국제행사 참여 (제주포럼, 트래블마트, 기항지별 세미나 등)	2회↑	2회↑	3회↑	3회↑	3회↑		

6. 국내 크루즈선사·여행사 초청 간담회 실시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국내 크루즈선사 및 여행사 핵심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인천 크루즈산업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19년 간담회 개최시 건의사항 등을 크루즈 정책개발에 활용(크루즈렉처 등)

22)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크루즈 트래블마트, 기항지별 세미나 등

□ 추진내용

- 국내 소재 월드크루즈 선사²³⁾ 및 국내 여행사²⁴⁾ 관계자 초청
- 인천 크루즈관광 현황, 인센티브 소개, 업계 건의사항 청취
- 오찬, 저녁만찬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A	국내 크루즈선사·여행사 초청 간담회 (인천크루즈 소개, 업계 건의청취, 인적네트워크 강화)	1회↑	1회↑	1회↑	2회↑	2회↑		

4

Develop tourism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매력적인 관광코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크루즈관광객
인천 유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1.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추진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터미널, 2,500만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플라이 앤 크루즈 관광에 유리한 입지
- 플라이 앤 크루즈는 인천 모항 및 기항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 예상

□ 추진내용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²⁵⁾ 구성 및 싱가포르 벤치마킹
- ONE-STOP 수화물 이동 서비스 체계 마련

23) 로열캐리비언, 코스타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홀랜드 아메리카라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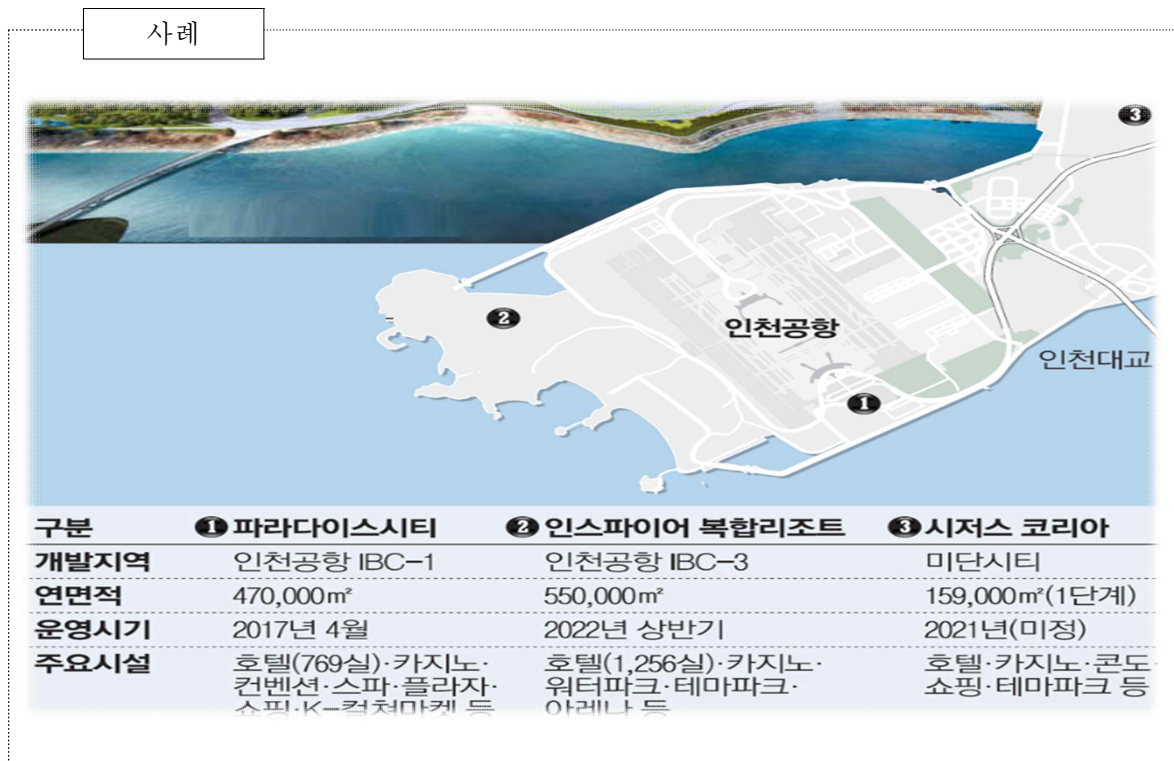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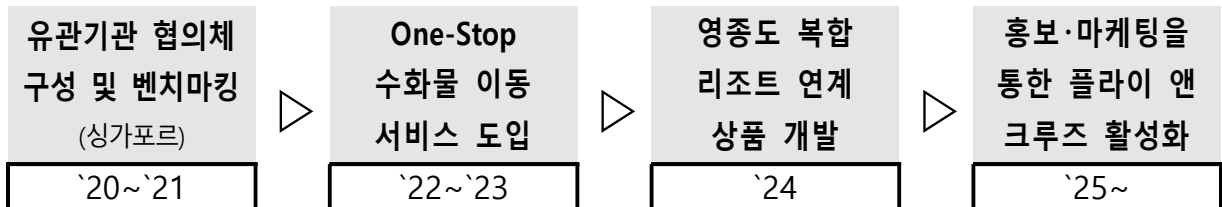
24) 롯데관광개발(주), 아주인센티브, (주)아크플렉스, 크루즈갤러리 등

25) 법무부, 지자체(시 및 군구), 공항공사, 항만공사, 관광공사, 인천연구원, 교수, 크루즈선사, 업체 등

- 크루즈터미널과 공항간 수화물 연결, 터미널 내에서 항공권 발권 등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 싱가포르 창이공항 fly&cruise 이동 서비스 벤치마킹

○ 영종도 소재 복합리조트²⁶⁾와 연계한 플라이 앤 크루즈 상품 개발



자료 : 신익수·지홍구(2018.12.6.), 영종도,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로, 매일경제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D	플라이 앤 크루즈 활성화 추진 (간담회, 벤치마킹, 이동서비스 도입, 상품개발 등)	협의체 구성, 싱가폴 벤치마킹		one-stop 수화물 이동서비스 도입		영종 리조트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활성화 추진	

26) 파라다이스시티(운영중),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22년 상반기), 시저스코리아(21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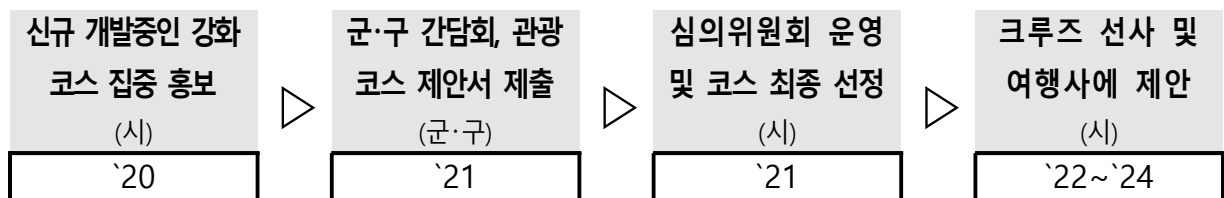
2.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 市(관광공사)

□ 필요성

- 글로벌 선사에 소개되어 있는 인천 관광코스는 서울 의존도가 높으며, 전통체험·음식 등 新 트렌드 관광이 접목되어 있지 않음
- 군·구와 협업하여 크루즈 관광코스를 매력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인천 기항 관광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

□ 추진내용

- '20년에는 신규 개발중인 강화도 코스 집중 홍보(평화전망대 등)
 - 포트세일즈 등을 활용하여 선사 및 여행사에 강화코스 지속적 제안
- ※ `19년 여행사 단체 강화상품 신규출시(88명)
- 크루즈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 제안(군·구)
 - 4~8시간 이내 코스로 구성, 체험·음식, 전통공연 등 新 트렌드가 접목된 코스 개발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와 연계한 코스 개발
 - 중국인관광객과 구미주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코스 개발
- 심의위원회 운영(제안서 검토) 및 신규코스 확정
-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에 제안 및 신규코스 운영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D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신규개발중인 강화코스 집중 홍보)	강화 코스 홍보						
D	크루즈 기항 관광지 신규코스 개발 (군구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코스선정, 여행사 제안)		군·구 코스제안 및선정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에 제안·홍보				

3. 테마크루즈 운영 및 기항지 연합상품 개발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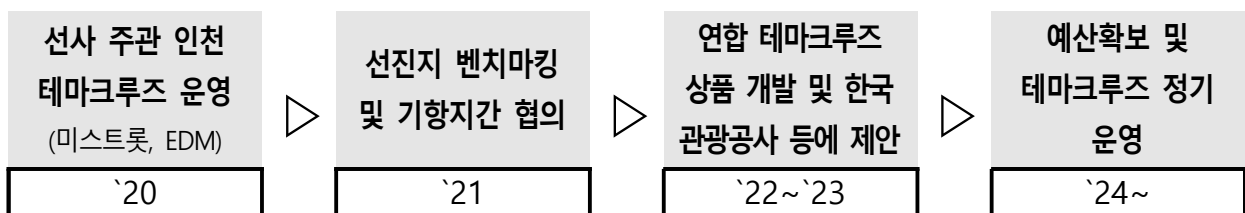
- 한류, 취미, 비즈니스, 게임 및 스포츠 등 각종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테마크루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테마크루즈 상품²⁷⁾이 운영된 바 있으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정치,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분야가 밀집되어 있어 테마크루즈 유치에 적합지로 판단됨

□ 추진내용

- 여행사·선사 주관으로 인천 출발 테마크루즈²⁸⁾ 운영('20년)
- 테마크루즈 운영상품 벤치마킹(해외 또는 부산시 등)
- 2개이상 지자체 연합 테마크루즈 상품 개발 및 한국관광공사, 크루즈선사 등에 제안

※ (예시) 중국기업 등 유치하여 MICE와 K-pop이 혼합된 3박4일 단기 테마크루즈 상품 개발

- 예산확보 및 정기적인 테마크루즈 운영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D	테마크루즈 운영 및 기항지 연합상품 개발 (벤치마킹, 기항지간 협의, 상품개발, 제안, 예산확보 등)	미스트롯, EDM 모항운영	벤치마킹 기항지간 협의	상품개발, 한국관광공사 등에 제안	정기 운영			

27) 대표적인 사례 : 2018 Color Play Party 크루즈(부산) / 유명 연예인 패션쇼, 비투비콘서트, 팝업 갤러리 등

28) '20년 인천출발 코스타아틀란티카에서 여행사·선사 주관으로 테마크루즈 2회 운영 예정 (K-POP<미스트롯>크루즈, EDM크루즈)

4. 남북 평화크루즈 개발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으며, 인천을 비롯한 속초 등 주요지자체에서도 남북한을 연계하는 평화크루즈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최근 크루즈관광 추세가 새롭고, 신선한 문화적인 측면의 수요가 많아 남북한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은 인천으로의 관광 유입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규 시장영역이 될 것임

□ 추진내용

- 북한 남포시와 항로 독점운항권을 체결한 보하이그룹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인천~남포~중국(대련, 산둥지역 등)’ 항로 개설 추진

※ 단,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라 추진시기 결정

사례

■ 남포시와 보하이페리그룹 독점 해상운항권 체결

- 중국 보하이페리그룹과 남포시간에 “여객화물 겸용(카페리) 여객 항로, 호화 크루즈 항로 개설 협력”에 합의(2019.3)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함.
- 남포시는 다른 해운회사와 경쟁성 있는 항로를 개설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 협력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보하이페리가 독점적으로 옌타이(烟台)-남포, 다롄(大连)-남포 간의 해상항로 운영권을 확보

자료: KOTRA 광저우무역관(2019.3.29.)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D	남북 평화크루즈 개발 (중국 보하이그룹과 '인천~남포~대련 등' 노선개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라 정부건의 및 추진 (인천~남포~대련 등)						

5

Expand professionalism 『크루즈 전문성 확대』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천 크루즈 관광 인지도·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 크루즈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 **시(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여행사 취업과 연계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인천 기반 크루즈관광 전문성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내용

- 연차별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확대 추진 ('20년 10명 → '24년 30명)
 - 크루즈 기항지 관광가이드, 국외 크루즈 전문 인솔자 등 양성
 - 크루즈 이론 및 실무 교육 후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등에 취업 연계

※ '19년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처음 실시(7명 수료)

- 인천항만공사, 인하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여행업협회 등 공동참여를 통해 전문성 확대 및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E	크루즈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기항지 관광가이드, 국외 크루즈 전문인솔자 등)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2. 인천 소재 대학에 크루즈 전문과정 및 학과 신설 - **시(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인천 소재 대학교에 크루즈 관련 전문과정 및 학과 신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인천 크루즈산업 전문가 육성

※ 현재 대경대(관광크루즈승무원과), 강원도립대(크루즈승무원과) 등 운영중임

□ 지원근거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²⁹⁾
-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³⁰⁾

29)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규정(제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국비지원 등 근거 규정(제13조)


30)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등 규정(제14조),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시비지원 근거 규정(제15조)

□ 추진내용

- '20~'21년에는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중 및 효과 분석
- 현재 학과가 개설된 대경대, 강원도립대 등 벤치마킹 실시
- 인천 소재 대학³¹⁾ 중 크루즈에 관심 있는 대학 발굴 및 협의
- 해수부에 양성기관 지정 요청 및 교육부에 학과 신설 승인 요청
- 크루즈 관련 학과 신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수부, 인천시 등)

※ 크루즈 전문과정 및 학과 개설시, 既 추진중인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종료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인천 소재 대학에 크루즈 전문과정 및 학과 신설 (벤치마킹, 대학발굴, 중앙정부 요청, 학과신설·지원)			벤치마킹 대학발굴	중앙정부 승인요청	학과 신설 및 행정·재정 지원		

3. 크루즈버디 사업 활성화 - 市(관광공사)

□ 필요성

-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크루즈 지원인력을 선발하여 통역·안내·관광 등의 미션을 부여하여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

※ '19년 총 12개국 25명 크루즈버디 선발·운영하였음.

□ 추진내용

- 외국인 안내 및 인천 기항지 홍보를 위한 크루즈버디 운영(25명이상/년)
 - 입항행사 운영요원 활동 등 인천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활동
 - 미션활동 및 팸투어를 통한 인천관광지 체험 후 홍보, 개선사항 제시
 - 인천관광에 대한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
 - 크루즈 기항시 안내데스크 운영 및 외국인관광객 안내 등

31) 인천카톨릭대, 인하대, 인천대, 재능대, 가천대, 경인여대, 청운대, 인하공전 등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E	크루즈버디 사업 활성화 (통역, 안내, 관광서비스 제공 지원인력 양성)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6

Reform thinking 『크루즈 인식개선 및 홍보』

민·관·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크루즈의 대중화 및 인식 개선 노력

1. 공무원 교육훈련 크루즈 과정 신설 운영 - 市(관광공사)

□ 필요성

- 다소 생소한 크루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승선 체험을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공공기관 직원 대상 크루즈산업 인식 제고

□ 추진내용

- 교육대상 : 5급이하 공무원,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 교육기간 : 연 2회 (2일/회)
- 교육인원 : 30명이상/회
- 교육주관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 교육내용
 - 1일차 : 인천 해양관광산업 현황, 크루즈터미널 소개 및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등
 - 2일차 : 현장학습(크루즈쉽투어 등)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R	공무원 교육훈련 크루즈 과정 신설 운영 (크루즈산업 이해, 터미널 소개, 크루즈쉽투어 등)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2. 크루즈 체험단 운영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

※ 해수부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국민 대상 모집하여 크루즈 체험단 운영하고 있음.

<참고 : `16년 ~ `18년 체험단 운영 실적(해수부)>

구분	`16년	`17년	`18년.上	`18년.下	`19년
산정인원	35팀 70명	50팀 100명	50팀 100명	50팀 100명	60팀 120명
접수인원	25,916명	70,850명	68,374명	64,582명	12,000명
크루즈	코스타 빅토리아호 (7.5만톤, 3,184명 규모)	코스타 빅토리아호 (7.5만톤, 3,184명 규모)	코스타 세레나호 (11.4만톤, 4,800명 규모)	코스타 포추나호 (10.2만톤, 4,560명 규모)	코스타 세레나호 (11.4만톤, 4,880명 규모)
운항 일정	부산→후쿠오카→마 이즈루→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부산 (5박6일)	부산→속초→블라 디 보스톡→사카 이미나토→부산 (5박6일)	부산→속초→블라디 보스톡→무로란→ 하코다테→부산 (7박8일)	부산→속초→블라디 보스톡→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 부산(6박7일)	인천→상해→후쿠 오카→부산 (5박6일)

□ 추진내용

-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크루즈 여행 기회 제공(60명/년)

※ 인천항만공사와 사업비 공동 분담

- 크루즈 여행 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블로거, 유튜브 등)을 통해 크루즈 홍보 미션 부여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R	크루즈 체험단 운영 (인천시민 대상 크루즈 여행기회 제공, 홍보 활동)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3. 인천 크루즈산업 국제행사 개최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국내외 크루즈산업 관련 관계자를 초청하여 인천항을 홍보하고 크루즈 선사 유치 기회로 활용

-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장 등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크루즈 인식 개선 및 인지도 확대

□ 추진내용

-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공동 국제크루즈포럼 등을 개최한 제주, 부산시 벤치마킹 및 국시비확보('20~'21년)

※ 인천항만공사 주관 환황해권 포럼 확대 검토(전시회 및 박람회 등)

- 인천 크루즈 국제행사 매년 1회 개최('22~년)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R	인천 크루즈산업 국제행사 개최 (제주·부산 벤치마킹, 국시비확보, 행사개최)	벤치마킹, 국시비확보, 환황해권포럼 확대 검토		1회	1회	1회		

4. 일반인 대상 팸투어 추진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선사·여행사 관계자에게만 진행하던 팸투어를 일반인(내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인천 기항 관광지를 적극 홍보

※ 사례 : 관광홍보 외국인 팸투어(안성시), 싱가포르 개별관광객 유치 팸투어(경북)

□ 추진내용

- 공항관계자,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내·외국인 일반인 초청 팸투어 실시(40명/년)

- 계절 및 시기별로 투어 내용을 조정하여 다채로운 인천의 모습 홍보

※ 기존 관광코스 또는 강화도 등 신규코스 위주로 운영, 체험·지역축제 연계 필요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R	일반인 대상 팸투어 추진 (선사·여행사가 아닌 일반인 대상 기항관광지 소개)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크루즈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지원
으로 인천 크루즈 활성화 및 편의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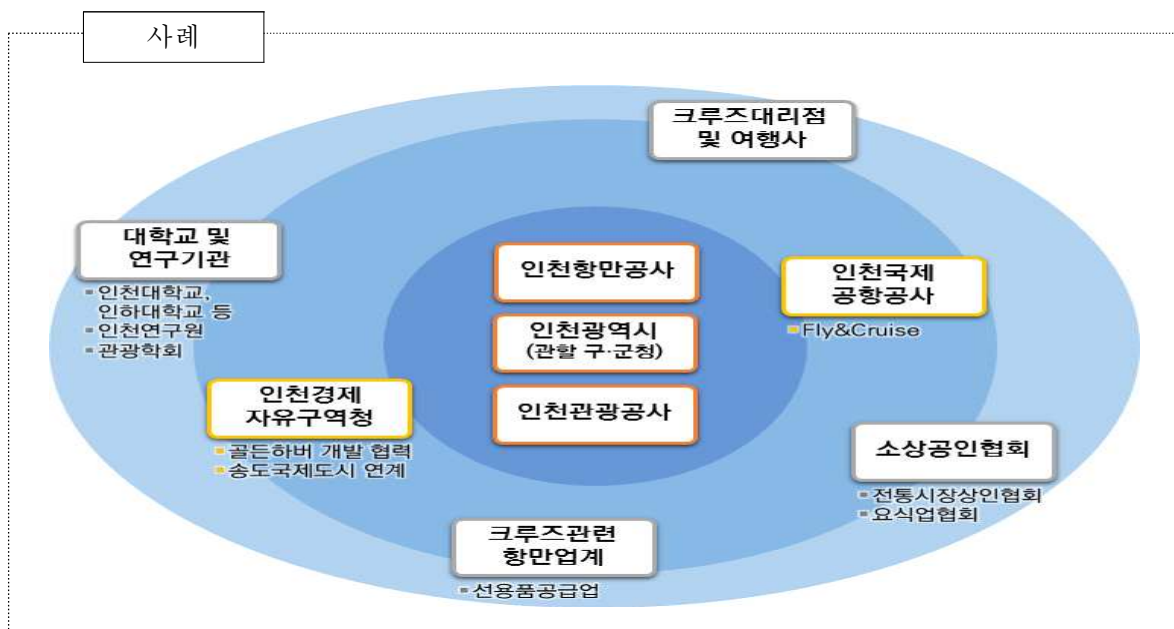
1. 인천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市[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크루즈 산업의 다양한 주체간 협의체 및 거버넌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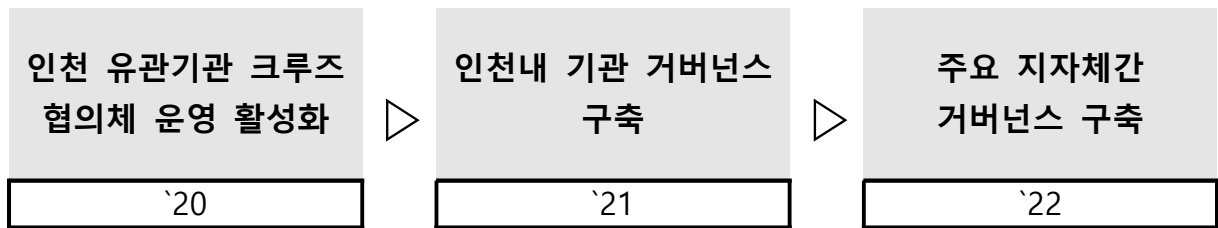
- 인천 유관기관간 크루즈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크루즈 유치 방안, 거버넌스 구축 등 논의('20년)
 -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 인천 내 크루즈 관련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21년)
 - 아시아 크루즈산업 정보공유, 공동마케팅, 국제행사 추진 등



인천내 크루즈 관련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 주요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21년)

- 여수, 속초, 부산, 제주 등의 지자체와 크루즈 선사 공동유치 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내 2개 지역 이상 기항, Fly&Cruise, Train&Cruise, 연안 크루즈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된 크루즈 상품을 개발·검토하고 홍보를 통해 지역 공동 상생 방안을 마련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	인천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유관기관 협의체, 인천내 기관 거버넌스, 주요 지자체간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협의체 활성화	인천내 기관 거버넌스	주요지자체간 거버넌스				

2. 크루즈 담당 인원 확충 및 전담조직 신설 - 市(관광공사)

□ 필요성

- 부산은 부산관광공사 3명, 부산항만공사 4명이 크루즈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인천관광공사 1명(타업무 병행), 인천항만공사 1명이 크루즈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제주는 크루즈 담당자 전문보직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선내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조선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

□ 추진내용

- 크루즈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전문 인력 단계적 확충
- 인천시 크루즈담당 전문보직 지정을 통해 크루즈업무의 연속성 확보
- 중장기적으로 크루즈전담팀을 신설하거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크루즈센터를 설립하여 인천 크루즈산업 전문성 확보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	크루즈 담당 인원 확충 및 전담조직 신설 (공사인력 확충, 시 전문보직, 크루즈전담팀 신설, 센터설립 검토)		공사 1명 전담, 시 전문보직 지정		공사 2명 전담		크루즈 전담팀 신설	크루즈 센터 검토

3. 크루즈 연관산업 조사 및 데이터 구축 - **시(관광공사), 항만공사**

□ 필요성

- 출입국사무소와 인천항만공사의 크루즈관련 통계와 한국/인천관광공사의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크루즈관광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체계 구축이 필요
- 법무부,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산재된 행정자료와 설문조사의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통계 DB 구축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관광객 또는 승무원 대상 인천 크루즈 설문조사 단독 추진(매년)

○ 인천시와 경인지방통계청이 공동으로 인천크루즈 행정통계 개발³²⁾

- 출입국사무소, 인천항만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행정자료 통합
- (크루즈 방문객) 분기별 방문객 현황, 성별 방문객 현황, 연령별 방문객 현황, 국가별 방문객 현황, 국가별 관광객 현황, 국가별 승무원 현황, 전항지별 관광객 현황, 차항지별 관광객 현황
- (크루즈 선) 부두별 입항 현황, 규모별 입항 현황, 전항지별 입항 현황, 차항지별 입항 현황
- (크루즈 선용품) 국내선용품 및 국외선용품 현황

○ 인천 및 수도권 지역 크루즈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인천의 크루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크루즈 전문 홈페이지가 전무한 상황으로 크루즈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크루즈 선박 스케줄, 지역 여행정보, 교통 등 기항지 정보를 제공하여 크루즈관광객들의 편의성 제고



□ 연차별 추진

전략	과제	'20	'21	'22	'23	'24	중기	장기
+	크루즈 연관산업 조사 및 데이터 구축 (단독 설문, 벤치마킹, 행정통계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통계관리)	크루즈 설문조사 매년 실시(인천 단독)						
		부산시 벤치마킹	행정통계 개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DB구축	

32) 부산시 벤치마킹 필요 (2018년부터 부산시와 동남지방통계청 공동으로 크루즈 행정통계 작성)

VIII

기대효과

- 인천 크루즈산업 육성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통해 인천 크루즈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명품 크루즈항 구축
- 새롭게 개장한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주변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해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 및 인천 이미지 제고
-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접, 2,500만 수도권 배후도시 등 인천항의 강점을 모색하고 활용하여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도모
- 크루즈 유치 및 관광객 인천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X

향후계획

- 인천 크루즈산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매년 초

X

부서별 협조사항

- 연차별 크루즈 사업예산 반영 협조 / 예산담당관
- 크루즈 해외마케팅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 협조 / 국제협력과
- 관광공사 크루즈 전담인원 연차별 확충 및 중장기 전담조직 신설 협조 / 관광진흥과

참고 1

참고자료

○ 국내 크루즈산업의 직접 효과(2017년 기준) - 인천연구원 연구자료

구분	경제적 효과		비고
	전체	인천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	60,918.1 백만원	4,622.1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크루즈 관광객 수 : 394,153명 • 인천 크루즈 관광객 수 : 29,906명 • 1인 평균지출경비 : 136.7달러 * 한국관광공사, 2017년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1인 기준 기항지 지출 금액 136.7달러 적용 ** 2017년 매매기준 환율 평균 : 1,130.61원 적용 (우리은행 외환센터 기간별 평균환율 조회 참고)
크루즈선 기항에 따른 항만수입	111,446.3 백만원	8,027.9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항차 수 : 236회 • 인천 항차 수 : 17회 * 7만톤급 선박 1회 기항시 항비, 도선료, 예선료, EDI 이용료, 줄잡이료, 선박대리점료, 선원교대비용, 기타서비스 비용, 부가가치액합계 : 47,223천원 ** 항차 X 47,223천원으로 계산
크루즈 선용품 수입	12,805.4 백만원	315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크루즈 선용품은 부산, 제주, 인천 주요 3개항 합산 기준임
기타 수입	94,400 백만원	6,80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선·도선료 등 부대비용 등 * 부대비용 : 1회 입항시평균 4천만 원 (해양수산부, 2015년 제4차 크루즈산업육성 협의체) ** 항차 X 4천만 원으로 계산
합계	279,570 백만원	19,765 백만원	

자료 : 1) 관광객수 : 해양수산부(2019), 연도별 크루즈 관광객 현황
 2) 1인평균지출경비 : 한국관광공사(2017.12), 2017년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 크루즈 선용품 수입 : 동남지방통계청(2018.9.) 최근 3년간 국내크루즈 실태분석
 4) 그 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11.), 크루즈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 인천 크루즈산업의 직접 효과(2025년 예측)

- 인천연구원의 2017년 직접 효과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예측치 추정

구분	2025년 경제적 효과예측(인천)	비고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	15,455.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크루즈 관광객 수(목표) : 100,000명 • 1인 평균지출경비 : 136.7달러 * 2017년 1인 평균지출경비 동일 적용 ** 2017년 매매기준 환율 평균(1,130.61원) 동일 적용
크루즈선 기항에 따른 항만수입	4722.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항차 수(목표) : 100회 * 항차 X 47,223천원으로 계산
크루즈 선용품 수입	1852.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기준 1항차당 인천 선용품 수입 비용(18,529,412원) * 항차 X 18,529천원으로 계산
기타 수입	4,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선·도선료 등 부대비용 등 * 부대비용 : 1회 입항시평균 4천만 원 ** 항차 X 40,000천원으로 계산
합계	26,030.7백만원	